

몬페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10월 4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주가 일하시네

3. 말씀 리뷰(Word): 룯기 강해(9) -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 룯 3:6~18

〈룯기〉 3장은 룯과 나오미의 노력보다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업 무를 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룯기〉 1장이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장부터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룯은 보아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룯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면, 3장에서는 룯이 먼저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또한 2장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만났지만, 3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공개적인 밭이 아니라 은밀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관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은 사귄을 누리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룯이 보아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 무를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룯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기다렸습니다. 나오미는 룯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룯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룯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안식을 주기까지 쉬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 무를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보아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려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는 관심을 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 나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의도적으로 찾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3. 롯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무를 자가 되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 나의 부족함이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업 무를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4. 롯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보아스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 나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며,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 무를 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신뢰하며,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이혁진

CM7 G2/B F/A C/E Dm7 Gb9 C Gb9

1. 날이 저 물어- 갈때- 빈들 에 서 걸- 을때- 그때 가 - 하나님 의때 -
2. 우리 모 인이- 곳에- 주님 함 께 계- 시네- 누리 네 - 아버지 은혜 -

CM7 G2/B F/A C/E Dm7 Gb9 C

내 힘 으 로 안- 될때- 빈 손 으 로 걸- 을때- 내가 고 백 해- 여호와 이 레 -
적은 떡 과 물- 고기- 내 모 든 걸 드- 릴때- 모두 고 백 해- 여호와 이 레 -

C/E F G/F Em7 Am7 /G Dm7 Gb9 C

주가 일 하 시네- 주가 일 하 시네- 주 께 - 아 끼 지 않- 는 자 에 게

C/E F G/F Em7/G# Am7 Dm7 Gb9 CM7

주가 일 하 시네- 주가 일 하 시네- 신뢰 하 며 걸 는 자- 에 게 -